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응집력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Effects of Family Cohesion and Self-Efficacy on School Adjustments in Adolescence

최정아*

경일대학교*

Choi Jung-ah*

Kyungil Univ.*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후기 청소년기의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개인 요인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요인으로서 가족응집력과 개인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0 한국청소년건강실태조사(Korean Survey on the Health of Youth and Children in 2010)를 통하여 9,844명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그 적합도와 주요 변수들 간의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력은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 역시 학교적응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족응집력과 학교적응 사이에서의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학령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I. 서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학습의 장일 뿐 아니라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일상생활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주요 환경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러한 주요 환경인 학교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한편, 청소년의 또다른 주요 환경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이가 이루어지면서 가족이 가지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가족은 중요한 환경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족요인들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으로서, 가족응집력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응집력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실증적인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0 한국청소년건강실태조사(Korean Survey on the Health of Youth and Children in 2010)를 통하여 9,844명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자의 51.4%는 남학생이었으며, 48.6%는 여학생이었고, 초등학생은 27.0%, 중학생은 33.1%, 고등학생은 40.0%였다. 가족응집력은 가족의 응집과 결속 정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5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54이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등을 묻는 3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97이었다. 학교적응은 수업, 학교규칙준수, 학교시설이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5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3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한 검증은 AMOS 20.0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모델 추정방법으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또한 Sobel 검증(5)을 통하여 가족응집력과 학교적응 사이에서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모형 분석

$$1)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	경로	b	β	SE	t
가족응집력	→ fc1	1.000	.913		
	→ fc2	1.038***	.909	.006	172.336
	→ fc3	1.135***	.902	.008	137.364
	→ fc4	1.130***	.906	.008	137.285
	→ fc5	1.152***	.845	.010	119.341
자기효능감	→ se1	1.000	.909		
	→ se2	.975***	.896	.009	110.308
	→ se3	.972***	.787	.012	82.384
학교적응	→ sa1	1.000	.893		
	→ sa2	1.039***	.944	.007	148.555
	→ sa3	1.051***	.916	.008	129.690
	→ sa4	.992***	.810	.010	103.493
	→ sa5	.981***	.765	.010	95.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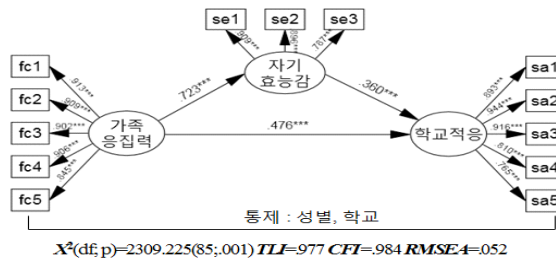
$X^2(df;p)=2268.276(52;.000)$ TLI=.975 CFI=.983 RMSEA=.066

*** p<.001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수로부터 각 측정변수들로의 경로가 모두 유의도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족응집력,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p<.001. 표준화계수. 오차항 및 통제변수경로 생략.

▶▶ 그림 2. 구조모형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가족응집력은 자기효능감($\beta=.723, p<.001$)과

학교적응($\beta=.476, p<.001$)에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 역시 학교적응($\beta=.360, p<.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가족응집력과 학교적응 사이의 관계에서 가지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Sobel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Z	p
가족응집력 → 자기효능감 → 학교적응	27.114	.000

IV. 결론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응집력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가족응집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개입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학교 부적응 자퇴 66%가 고교생”, 국민일보 2013년 10월 16일자 기사.
- [2] “대구 고교생 100명 중 1.5명 학업중단...학교 부적응 많아”, 영남일보, 2013년 9월 7일자 기사.
- [3] Demaray, M. K., Malecki, L. M., Hodgson, K. K., and Rebus, P. J.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udent Adjustment: A Longitudinal Analysis.”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42, No.7, pp.691-706, 2005.
- [4] DuBois, D. L., Eitel, S. K., and Felner, R. D.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6, No.2, pp.405-414, 1994.